경주시, 'LCK 서머 결승전' 개최 확정

비수도권 지역서 3번째
대회기간 3만여명 방문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사진은 2023 LCK 스프링 결승전(대전) 현장 모습

주낙영 경주시장이 큰일을 해냈다.

LCK·한국e스포츠협회가 주최·주관하는 '2024 LCK 서머 결승전 개최도시' 공모에 최종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대회 유치로 e스포츠 저변 확대를 통한 관련 산업 기반 구축 계기뿐만 아니라 MZ 세대를 포함한 3만여 관광객 유입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경주는 숙박, 교통, 관광 등 행사장 주변 인프라가 풍부한 역사문화 관광도시로, e스포츠 관람 뿐 아니라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어 지역을 찾는 관람객들의 만족도가 높을 것이라 생각한다. 성공적인 대회 개최로 LCK의 명성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대회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대회는 9월 국내 최대 e스포츠 대회인 '리그오브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이하 LCK) 서머 결승전'이 열린다.

올해 12년째를 맞이한 LCK는 국내외에서 많은 팬과 시청자를 보유한 e스포츠 리그다.

LCK 서머 결승전은 지난해 약 3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방문했다.

국내·외 온라인 생중계 시청자 수가 1일 기준, 약 400만 명 정도로 팬들의 관심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시는 지난 1월 1차 후보도시로 선정돼 유치 제안서를 제출했다.

2월 2차 현장심사를 거쳐 유치가 확정됐다.

지난해 대전시에 이어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3번째다.

시는 풍부한 숙박시설, 뛰어난 교통 편의성을 비롯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과 관광자원, 대규모 행사개최 경험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대회 개최장소인 경주실내체육관은 도심에 위치해 있어 뛰어난 접근성은 물론 선수단 및 관계자 숙박지원, 다양한 문화공연 제공 등의 지원도 크게 작용했다.

LCK 서머 결승전은 매년 스프링전과 서머전 총 2회 열린다.

스프링전은 4월 서울에서 개최됐다.

서머 결승전은 경주실내체육관에서 9월 7, 8일 이틀간 열린다.

타임캡슐공원 인근에서는 거대한 돔 안에 대형 스크린을 설치한다.

9월 6~8일까지 3일간 다채로운 볼·먹·즐길 거리로 구성된 팬 페스타(FAN FESTA)도 펼쳐진다.

시는 대회 개최에 앞서 관련기관과 안전, 교통질서 등의 부문에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 역대 가장 성공적인 대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한다. 윤용찬 기자

김재욱 칠곡군수, 셀카 촬영… 주민과 소통 재욱 칠곡군수가 칠곡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자원봉사 단체 화합 한마당 운동회에 참석해 셀카 촬영을 하며 소통에 나섰다. 행사는 자원봉사자 단합과 결속력을 다지고 자긍심 고취를 통해 2024년도의 성공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위해 마련됐다. 44개 자원봉사 단체 회원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구 나르기, 색판 뒤집기, 단체 줄넘기 등의 5개 종목에서 팀별 대항전을 펼쳤다.〈사진=칠곡군 제공〉

❙ 단체장 일정 ❙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16일 오후 몽골국 울란바토르에 몽골 총괄교육청에서 직업계고 해외 우수 유학생 입학 업무협약과 따뜻한 경북-R 컴퓨터 국제 나눔 협약식에 참석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16일 오전 상서장에서 열리는 '상서장 춘향대제'에 참석한다.

2025 APEC정상회의 경주 유치

경북교육청, 유보통합 운영 탄탄대로

경북 교육 환경 지역적 특성고려
경북형 유보통합 정책 연구 추진

도 교육청-도청, 교육지원청-지자체 실무진들이 정기적으로 만나 소통을 통해 안정적으로 업무 이관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과 보육 환경, 교직원과 학부모의 요구 분석을 통해 수요자들의 의견을 담은 합리적이고 실제적인 유보통합 이관 로드맵을 마련한다.

경북도의 특색이 담긴 경북형 유보통합이 실현되도록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이 한 말이다.

때문에 경북교육청은 경북 교육 환경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유보통합 운영 방안을 찾는 정책 연구 용역을 추진한다.

정부는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와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 환경조성을 위한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0~5세 모든 영유아가 이용 기관에 상관없이 양질의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가는 구체적인 유보통합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도는 저출생으로 인해 특히 중소도시에서 영유아 보육·교육 기관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유아 체험활동 지원을 위한 경북교육청 산하 유아교육체험센터와 영유아 체험활동 지원을 위한 경북도 산하 육아종합지원센터 등과 같은 인프라가 이미 구축돼 있다.

2026년에는 경북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이 설립된다.

경북교육청이 연구 용역을 추진하는 '경북형 유보통합'은 경북도의 교육·지역적 환경이 고려되고 학부모와 교직원의 요구가 반영된 특색있고 실효성 있는 경북도의 유보통합 모델을 의미한다.

정책 연구의 사업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간이다.

연구 방식은 외부 위탁형으로 규격, 가격 분리 동시 입찰로 연구 기관을 선정한다.

사업비는 4000만원이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입찰 마감일 전 일까지 학술·연구 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된 업체여야 한다.

정책 연구 내용은 △경북도 공·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현황 등 지역 여건 분석 △유보통합 추진에 대한 학부모와 교직원의 요구도 조사 및 해결책 마련 △안정적인 유보통합을 위한 행·재정 이관 로드맵 제시 △경북교육청 정책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돌봄 확대와 영유아 교육·보육 지원기관 활용을 통한 경북형 유보통합 모델 제시다.

경북교육청은 정책 연구의 결과를 활용, 유보통합을 대비한 우선순위 과제와 정책을 발굴, 교육부 유보통합 추진 절차에 따른 안정적인 지방업무 이관 방안을 마련한다.

지역적 특성을 반영, 영유아보육·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을 구축한다.

경북도만의 특색있는 유보통합 모델과 경북형 제3의 기관 모델을 개발한다. 김성용 기자

홍준표-김경율 때아닌 개싸움 한창…

홍준표," 분수도 모르는 개가
사람 비난 하는거 본다 비난

사진 한동훈 위원장 사랑합니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김경율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때아닌 개싸움을 하고있다.

발단은 김경율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홍준표 대구 시장을 개에 비유한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다.

15일 김경율 전 비대위원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홍 시장이 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몰아세우고 있는지를 묻는 말에 "저건 (개통령이라는) 강형욱 씨가 답변하는 게 맞다. 강형욱 씨가 제일 정확히 알 것"이라고 했다.

이는 홍 시장 의도를 반려견 조련사 강형욱 씨가 알 것이라는 말로 홍 시장을 개 취급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홍 시장은 즉각 반격에 나섰다.

소통채널 '청년의 꿈'에서 "(김경율 전 비대위원이) 나를 개에 비유했다"며 "세상 오래 살다 보니 개가 사람을 비난하는 꼴도 본다"고 받아쳤다.

홍 시장은 "분수도 모르는 개가 사람을 비난하는 것도 본다"고 비난하면서 자신은 사람, 김 전 위원은 개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

홍 시장은 '그래도 한동훈 위원장이 당의 요청을 받고 최선을 다했다'는 누리꾼 지적에 대해 "한동훈 따라가라"며 불편한 반응을 보인 뒤 "어린애가 헛심 쓴 것"이라며 한 전 위원장을 어린애 취급했다.

앞서 홍 시장은 한 전 위원장을 향해 △ 철부지 △ 정치 초년생 △ 문재인 사냥개 △ 보수를 짓밟던 사람 △ 깜냥도 안 된다 △ 셀카 찍으면서 대권 놀이에 취했다 △ 내가 당에 남아 있는 한 용납하지 않는다는 둥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김 전 위원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요청으로 비대위원 직을 맡았다가 총선 패배 뒤 한 전 위원장과 함께 물러났다.

그는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홍 시장이 "우리에게 지옥을 맛보게 한 한동훈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등 연일 각을 세우고 있는 일과 관련해 "홍준표 시장의 일련의 증상들에 대해서 제가 굳이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라며 "저건 (개통령이라는) 강형욱 씨가 답변하는 게 맞다. 강형욱 씨가 제일 정확히 알 것"이라고 뼈 있는 말을 했다.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씨를 언급한 이유를 묻자 김 전 위원은 "청취자들이 잘 알 것"이라며 말을 돌린 뒤 홍 전 시장의 수재 발생 때 골프 논란 등을 거론했다.

이어 "홍준표 시장은 저에 대해서 상당히 모욕적인 말씀을 많이 했다"며 "계속 좌파좌파, 김경율 좌파, 한동훈 좌파 이런 얘기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좌파라는 표현은 과거 우리 정치를 희화화했던 빨갱이라는 단어의 순치된 표현이다"며 지금 홍 시장이 빨갱이 논쟁을 펼치고 있다고 불편해했다.

아울러 홍 시장이 한동훈 책임론을 들고 나온 배경에 대해 "차기에 대한 고려, 경쟁자(제거를 위한) 이런 것 아니겠냐"며 차기 대권 경쟁자를 제거하려는 홍 시장의 노림수라고 주장했다.

'홍 시장이 차기 경쟁자 제거를 위해 나서고 있다'라는 김 전 위원 등의 말에 대해 홍 시장은 "어처구니없는 망발"이라며 다당을 위한 마음에서 나온 일이라며 펄쩍 뛰었다. 조미경 기자

포항 송도해수욕장 재개장 내년으로 또 연기…

바다시청 편의시설 위치
확정되지 않아 공사 지연

올 여름 휴가철 재개장할 예정이던 포항 송도해수욕장 개장이 내년으로 또 미뤄질 전망이다.

15일 포항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재개장을 목표로 진행해온 바다시청과 화장실, 세족시설 등 편의시설 공사가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

시는 지난해 화장실 위치 문제와 일부 상가의 반대로 송도해수욕장 공사를 중단했다 올해 7월 개장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바다시청과 편의시설 위치가 확정되지 않아 공사가 지지부진하다.

시는 8월 중 바다시청 등에 대한 공사에 들어가 내년 3월 완공할 계획을 세웠다.

포항 송도해수욕장은 1970~1980년대 동해안 최고 해수욕장으로 명성을 떨쳤다. 하지만 태풍 등으로 백사장이 유실되면서 2007년 폐장했다.

시는 2012년부터 300억 원을 투입, 백사장 복원 공사를 벌여 10여m에 불과하던 백사장 폭을 50m로 넓혔다.

백사장 유실을 막기 위해 폭 40m, 길이 300m의 수중 방파제 3곳을 해안과 300~400m 떨어진 수면 아래에 설치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송도해수욕장 재개장을 위해 다방면으로 준비해 왔지만 올해 개장은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정창명 기자

대구시, 비슬산에서 산불예방 캠페인

대구시는 '봄철 산불특별대책기간'을 맞아 지난 14일 오전 비슬산 자연휴양림 입구에서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김선조 행정부시장과 산림관계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여해 비슬산을 찾는 시민들에게 산불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부시장은 "일 년 중 4월이 산불에 가장 취약한 시기이기 때문에 직접 캠페인에 참여하게 됐다"며, "산불로부터 아름다운 봄꽃과 이웃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시민들이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근 대구시에 발생한 산불 4건 모두가 3월에만 발생한 가운데 산림 4.83ha가 불에 타 소실됐다. 이 중 2건이 논·밭 소각행위로 발생된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시 공공보건의료기관 협의체, 공공의료 발전 견인

경북대병원·심뇌혈관질환센터 등 기관별 전문성 활용 공동 협력사업 지속적으로 발굴·추진 모범사례로

대구시는 2015년 전국 최초로 공공보건의료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의 공공보건의료 발전 정책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공동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로 협의체가 구성된 지 10년이 되는 해다. 지난 10년간 협의체 참여기관을 12개에서 26개로 확대했으며 대구시의 주관적 건강인지율은 41.9%에서 50.0%로 개선됐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협의체 기관별로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던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연계·협력하는 '공동 협력사업'을 시작하며 지역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

공동 협력사업으로 기관별로 제공하던 42개의 공공보건의료 교육정보를 '공동교육 플랫폼'(시민건강놀이터 홈페이지)을 통해 매달 통합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교육 참여를 위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공동교육 플랫폼에서는 시민 보건의료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인 △관절염 소그룹 교육(권역 류마티스·퇴행성관절염 전문질환센터) △호흡기 체험관 교육·견학(권역 호흡기 전문질환센터) △치매 이해교육(대구광역치매센터) △심폐소생술 교육(대구시 응급의료지원단) △고혈압·당뇨 교육(대구의료원) 등의 정보가 상시적으로 제공되며, 자세한 교육 일정은 시민건강놀이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올해는 대구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지역사회 보건의료 데이터 공유 플랫폼' 기초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데이터 공유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최신 공공보건의료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해 시민과 전문가의 지역사회 보건의료 데이터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시는 공공보건의료기관 간 지속적인 협력을 위해 공공보건의료기관 협의체 운영진·대표자·실무자 회의를 확대 운영하며, 오는 11월에는 10주년 성과대회를 열어 다양한 협력 사례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정의관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10주년을 맞은 대구시 공공보건의료기관 협의체는 기관별 전문성을 활용한 대구 맞춤형 공동 협력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하는 등 지역의 공공보건의료 발전을 견인하는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대구행복진흥원 8人8色 시민홍보대사 위촉 '눈길'

공공기관 연예인 뽑는 통념 깨고 동시대 생애주기별 시민들 구성

대구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이하 행복진흥원)이 최근 '행복진흥 홍보대사' 8명를 위촉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행복진흥원은 '공공기관 홍보대사=연예인'이라는 통념을 깨고, 동시대를 살아가는 보통사람들의 특별한 이야기로 시민들에게 감동을 주겠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위촉된 '행복진흥 홍보대사'는 행복진흥원 내 생애주기별 팀에서 추천한 인물들로 구성됐다.

△현정화 한국대중음악치유협회장 △천도희 문해교육 학습자 △송하영 아무의 방 대표 △권지혜 운암고 학생 △배지숙 ㈜아이나리 대표 △이종화 씨플러스 대표 △김향숙 성별영향평가 컨설턴트 △권하연 대구다문화강사협회 대표 등이다.

한국 대중음악치유협회 현정화 회장은 대중음악에 심리학을 접목한 새로운 방식의 강의로 '타인의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는 노래지도사'로 잘 알려져 있다.

늦깎이 문해학습자 천도희 씨는 행복진흥원에서 글씨를 배웠으며, 이후 일찍 세상을 떠난 남편을 회상하며 쓴 시작품 '남편 이름 알아보려고'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상을 수상하며 세상에 알려졌다.

송하영 아무의 방 대표는 행복진흥원 청년센터에서 운영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과 함께 창업에 성공했고, 이후에도 창업을 준비하는 지역 청년들의 멘토로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배지숙 대표가 운영하고 있는 ㈜아이나리는 지역의 대표 가족친화인증기업으로 워라밸을 중시하는 운영방침을 통해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은 곳으로 알려져 있다.

간병인 매칭플랫폼인 씨플러스의 이종화 대표는 7둥이(복중 태아 포함)아빠로 가족의 소중함과 출산의 기쁨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사회활동을 펼치고있다.

또한 성별영향컨설턴트 김향숙 씨와 다문화강사협회 권하연 대표 역시 왕성한 활동으로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있다.

이들은 각자의 특별한 경험을 공유하며 행복진흥원과 함께, 진흥원이 진행하고 있는 생애주기별 사업을 홍보하고, 사회서비스 수요자와의 양방향 소통에 힘쓸 예정이다.

정순천 대구행복진흥원 원장은 "유명 연예인이 아닌 보통 사람들로 구성된 행복진흥 홍보대사들의 특별하고 감동적인 이야기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라며 "사각지대 없는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 방안을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미경 기자

동구청, 출근길 직원맞이 청렴 캠페인

청렴 비누 나눠주고 퀴즈 이벤트도

동구청은 15일 구청 현관에서 '출근길 직원맞이 청렴하DAY 캠페인'을 실시했다.

캠페인은 '당신의 청렴한 일상을 응원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골드바 모양의 청렴 비누를 나눠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는 부정부패를 비누로 씻은 것처럼 깨끗하고 청렴한 직장문화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청렴 비누를 사용할 때마다 직원들이 청렴을 마음에 새기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신뢰받는 청렴한 동구가 되기 위해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에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동구는 매월 청렴하DAY에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직자가 준수해야하는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청렴의무에 대한 주제를 재미있는 퀴즈로 풀어가는 이 달의 청렴퀴즈 이벤트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조미경 기자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마케팅 컨설팅

동구, 기업브랜딩·가치알림 사업

동구청은 4월부터 6월까지 2개월 동안 신생·소규모 사회적경제기업 20여개를 대상으로 마케팅 교육과 개별 기업 컨설팅을 지원하는 '기업브랜딩, 가치알림' 사업을 진행한다.

이번 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에 개별 기업 소개서 개발, 홍보 자료 제작 및 활용 방법을 교육해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홍보자료 제작 교육과 함께 기업 특성에 맞는 기업브랜딩에 대한 개별 컨설팅을 진행하며, 홍보물 제작, 광고 탑재, 피드백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프로그램을 통해 동구의 다양한 분야 사회적경제기업이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경쟁력을 갖추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토대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미경 기자

수성구, 리틀아이스하키단 창단

수성구청은 지난 13일 아르떼수성랜드 아이스링크 광장에서 아이스하키 꿈나무 육성을 위한 '수성구리틀아이스하키단'을 창단식을 개최했다.

어린이들이 지역 여건상 접하기 어려운 동계스포츠에 참여할 기회를 넓히기 위해 수성구가 주도해 리틀아이스하키단을 창단했다.

학교 수업이 없는 매주 토요일마다 2시간 정도 훈련하며, 수성구를 대표하는 선수로 각종 대회에 출전하고 스포츠 교류 활동에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수성구리틀아이스하키단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최초의 아이스하키 선수단이라 의미가 더 크다. 수성구체육회가 운영을 맡았으며 김중호 대구시 아이스하키협회 부회장을 단장으로 위촉하고 초대 감독에는 이도희, 코치에 김종성 지도자를 선임했다.

지난 2월 지역 1~3학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선수단을 모집, 25명을 선발해 최종적으로 28명의 선수단을 꾸렸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아이스하키는 다른 스포츠에선 느끼기 힘든 박진감이 매력적인 종목으로 조직력과 협동심을 기를 수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종목에서 리틀스포츠단을 지원해 스포츠 저변을 확대하는 동시에, 유소년들이 건강하고 창의적인 미래인재로 자랄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조미경 기자

어서와~ 볼거리 가득한 '군위전통시장'은 처음이지

시티투어 전통시장 코스 3·8일 장날마다 운영 나서

군위군과 군위전통시장 상인회는 지난 13일 장날을 맞아 지역을 찾은 '군위 전통시장 투어' 방문객들을 맞이했다.

올해 신설된 대구시티투어 코스 중 하나인 '군위 전통시장 투어'는 장날인 3, 8일 동대구역에서 출발해 군위전통시장을 거쳐 대표 관광명소를 둘러보는 코스로 운영된다.

군위군과 상인회는 '군위 전통시장 투어'를 이용하는 방문객들의 편의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장투어(맛집소개)리플릿과 장바구니를 제공하고 먹거리·볼거리 가득한 전통시장을 소개했다.

이날 참석한 방문객들은 시장에서 향토 음식도 맛보고 공연장에서 펼쳐진 공연행사도 함께 참여하며 투어를 즐겼다.

이인식 상인회 장은 "대구시티투어 노선에 군위전통시장코스가 추가되어 매우 기쁘다"라며 "앞으로 방문객들의 만족도를 올리기 위해서 상인회원들과 합심해 다양하고 특색있는 군위전통시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시춘 지역활력과장은 "대구시티투어 방문객들이 좋은 기억으로 돌아가 다시금 군위전통시장을 찾아올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와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전통시장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재성 기자

대구농수축산물도매시장 하빈 이전 본격화

3선 추경호 "달성 발전 약속 실천"

추경호 국회의원은 대구농수축산물도매시장(이하 대구도매시장) 이전 시설현대화공모사업이 최종 선정돼 도매시장의 하빈 이전 약속 실천이 본격화됐다고 15일 밝혔다.

추 의원은 제22대 달성군 국회의원 선거에서 3선으로 당선돼 지역현안문제 해결에 힘쓰고 있다.

대구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계획에 대구시의 협조 요청을 들은 추 의원은 농림부에 現 대구도매시장이 안고 있는 시설노후, 재난취약, 물류시설 및 주차공간 부족 등 문제를 일시에 개선하고, 미래 50년에 대비한 유통구조 혁신을 위한 최적의 방안이 하빈면 이전신축임을 실무진은 물론 장·차관에게 직접 설명하고 설득해 최종 선정되는 성과를 낼 수 있었다.

시설 현대화 사업은 총사업비 4,099억 원으로서 국비 904억 원, 시비 2,645억 원, 달성군 550억 원이며 부지 278,026㎡, 건축연면적 155,654㎡ 규모로서 주요 시설로는 공동집배송장, 저온경매장, 저온저장고와 선별, 소분, 패키징, 가공 등을 위한 상품화시설 등을 신설하여 현재 도매시장과는 차별화된 인프라를 갖출 예정이다.

추경호 의원은 "지난 선거기간 동안 농수산물도매시장 하빈면 이전의 조속한 추진을 약속했다"며 "한강 이남 최고의 거점 도매시장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등 나머지 행정절차 추진도 대구시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조여은 기자

강한 신문 대구광역일보 '독자의 가슴' 까지 생각합니다.
창간 1996년 7월 11일 등록번호 대구가 00016(일간) 누리집:www.dgy.co.kr 전자우편:dgynews@daum.net
발행인 김영숙 | 편집인 김성용 | 편집국장 김현석 | 부사장 조여은
대구시 중구 태평로 286 (2층) 대표전화 053-253-0000 FAX 053-253-0041 광고접수 053-257-0000
대 표 053-267-9000 경영지원국 053-267-5000 광고국 053-267-0800 문체부 053-253-0065
부사장 053-254-0500 기획조정실 053-267-0600 사회부 053-253-0060 지방부 053-253-0064
편집국장 053-257-0200 임원실 053-267-0700 정경부 053-253-0061 편집부 053-253-006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외부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경북교육청, 성희롱·성폭력·아동학대 연수

경북교육청은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아동학대 예방과 대응을 위한 관리자 역량 강화 연수를 한다.

15, 22일 구미에 있는 호텔금오산과 경주에 있는 더케이호텔 경주에서 도내 초·중·고·특수 학교의 교장·교감·업무 담당자 등 950여 명을 대상으로 한다.

연수는 각급학교의 관리자와 성고충심의위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성고충심의위원회를 공정하고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성희롱·성폭력·아동학대 사안과 학교 폭력 사안 발생 시 학교가 올바르게 대응하고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사안 처리에 대한 상세한 절차 안내로 진행된다.

경북 헴프산업 활력 수익원 다양화 연구

버려지던 헴프 뿌리·줄기 기능성분 활용 연구 추진

경북농업기술원 생물자원연구소는 헴프 산업의 새로운 활로를 찾는 헴프 뿌리 등 미이용 부위를 활용한 산업 소재 개발 공동연구를 추진한다.

조영숙 경북농업기술원장은 "헴프의 미이용 부위를 이용한 산업 소재화 및 제품화 연구를 공동 수행, 헴프 이용성을 높이고, 헴프 산업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겠다"라고 말했다.

연구소는 최근 의료용 헴프 연구기업인 ㈜네오켄바이오 및 ㈜에이팩 관계자들과 공동연구 추진을 위한 업무협의회를 가졌다.

헴프 뿌리와 줄기 기능 성분을 활용한 산업 소재화·제품개발을 위해 연구소와 업체의 역할 분담, 연구 방향, 세부 계획 등을 논의했다.

기능 성분 증진을 위한 적정 광조건 설정 등 에어로포닉스(aeroponics, 분무경 재배) 재배 조건 구명, 기능 성분 추출 및 효능 평가, 화장품 등 기능성 제품개발 연구를 한다.

헴프 뿌리와 줄기에는 다양한 폴리페놀(polyphenol)과 터페노이드(terpenoids) 등의 기능 성분이 함유돼 있어 항염 · 항산화 · 노화 방지 등의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미국 등 해외에서는 이를 이용한 제품 생산이 이뤄지고 있고, 국내에서도 산업 소재화와 제품개발에 관한 연구가 일부 진행되고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마의 잎과 꽃은 마약으로 분류되지만 뿌리와 성숙한 대마의 줄기 및 그 제품은 마약류에서 제외돼 있어 법령 규제를 받지 않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공동연구에서 기업체는 숙련된 인력과 재배·가공 이용 시설 장비를 계속 활용, 지속적인 헴프 사업을 수행한다.

연구소는 각종 기능성 제품개발로 소비 트렌드를 창출, 경북 헴프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 김성용 기자

한수원이 마련한 육아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동들. 〈사진=한수원 제공〉

한수원의 육아해방 일지…놀이·문화체험 지원

2자녀 이상 다자녀 직원 대상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정부의 출산·육아지원 정책에 부응, 2자녀 이상의 다자녀 한수원 가족을 대상으로 육아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한수원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의 하나로 올해부터 시작된 육아지원 프로그램은 반복되는 일상과 육아에 지친 부모와 자녀를 위한 놀이·문화·역사체험 등으로 구성됐다.

부모에게는 잠시나마 육아 스트레스에서의 해방을, 자녀에게는 상대적으로 문화 인프라가 열악한 원전 주변 지역에서의 특색 있는 경험을 선사하고 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육아지원 프로그램이 바쁜 직장생활과 출산·육아를 병행하느라 애쓰고 있는 직원들에게 보내는 작지만 큰 응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말했다.

한수원은 앞으로도 새롭고 알찬 육아지원 프로그램으로 가정이 행복한 한수원을 만드는데 적극 노력한다. 윤용찬 기자

경북보건환경연, 진드기 감시사업 시작

심하면 다발성 장기부전 신경학적 증상 등 사망…

경북보건환경연구원이 질병관리청 경북권 질병 대응센터, 대구보건환경연구원과 공동으로 '대구·경북 감염병 병원체 매개 진드기 감시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SFTS) 등 진드기 매개 감염병의 사전 발생 예방을 위해서다.

사업은 대구·경북 내 5개 지역(대구 달서·군위, 경주·영천·영덕)을 대상으로 4~11월까지 월 1회 진드기를 채집, 종 분류 동정 및 유전자 검출 검사로 4종(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진드기매개뇌염(TBE), 큐열, 라임병)의 원인 병원체 존재 유무를 확인한다.

진드기 감시 사업 결과는 매월 기관별로 상시 공유하고 질병관리청과 각 지자체와 협업, △매개체와 환자 발생 간 상관관계 분석 △진드기 다발생 지역 감시 △지역주민 대상 예방 교육 등을 한다.

도는 최근 10년간 인구 10만 명당 SFTS 환자 발생이 전국 2위로 높으며, 주로 농작업과 등산 등 야외 활동 시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한 진드기에 게 물려 감염된다.

SFTS의 주요 증상은 발열, 피로감, 소화기계 증상, 근육통, 두통 등이다.

심한 경우 다발성 장기부전이나 신경학적 증상 등이 나타나며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SFTS는 백신과 치료제가 없고 치명률이 약 18%로 높아 사전 예방과 환자 조기 발견·적기 치료가 중요한 감염병이다.

SFTS를 매개하는 작은소피참진드기(Haemaphysalis longicornis)는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크기는 약 2~3mm로 갈색빛을 띤다.

주로 수풀이 우거진 곳에 존재하다가 사람이나 동물이 수풀 속을 지나가면 숙주에 붙어 유충·약충은 4~6일, 성충은 2주 이상 붙어 있으면서 흡혈한다.

참진드기는 8월 개체 수가 급증, 11월까지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므로 해당 시기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SFTS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농작업이나 야외활동 시 긴 의복 착용으로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귀가 즉시 목욕해야 한다. 진드기 서식지 제거를 위해 집 주변의 텃밭이나 농경지 주변의 잡풀을 주기적으로 제거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대구·경북 3개 기관의 공동 협력으로 진드기 매개 감염병을 통합 감시하여 기후변화에 대비한 감염병 대응 능력을 높이고, 시·도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용 기자

대구교육청, 즐거운 독서문화 조성 앞장

학생·교원저자 도서 33편 전시·저자와의 만남 운영

대구교육청은 '2024 학생(교원)저자 출판지원 도서 전시(이하 도서 전시)'를 운영한다.

책쓰기 교육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글을 쓰고 나누는 즐거운 독서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은희 교육감은 "학생들이 책을 읽고 책을 쓰는 과정을 통해 비판적 사고력을 키우고, 인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융합적인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독서인문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서 전시는 올해 발간된 학생·교원저자 도서 33편을 대상으로 내년 2월까지 대구시립공공도서관 10곳과 대구미래교육연구원, 대구창의융합교육원, 대구교육해양수련원, 대구민주시민교육센터, 대구아트웨이 등 총 15곳에서 진행된다.

도서 전시와 함께 학생저자, 교원저자가 글을 쓰고 책을 만들게 된 과정을 상세하게 소개 하는 저자와의 만남 행사도 준비해 저자와 함께 생각을 나누고 소통하는 시간도 가진다.

지난 3일 대구삼국유사군위도서관에서 진행된 '저자와의 만남'은 지난해 7월 대구로 편입된 군위지역에서 처음 열린 대구독서교육 관련 행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었다.

행사에서 교원저자인 대구월성초 이인희 수석교사가 발간한 도서'초등놀이토론'과 대구불로초 이혜진 수석교사가 발간한 도서'어서 오세요, 시맛집입니다'가 소개됐다. 황태용 기자

대구신세계, 식품관 슈퍼마켓 새 단장

초(超)신선 프리미엄 식품 경쟁력 높여 맞춤 식재료 손질·소분 서비스 도입 등 고객 편의 초점 맞춰 오픈

대구 신세계백화점 식품관 내 슈퍼마켓인 '신세계푸드마켓'이 리뉴얼을 마치고 새롭게 문을 열었다.

15일 대구 신세계백화점에 따르면 2016년 개점 이후 처음으로 지하 1층 식품관을 대폭 새 단장했다.

'초(超)신선' 프리미엄 식품으로 경쟁력을 높이고 맞춤형 식재료 손질·소분 서비스 도입 등 고객 편의에 초점을 맞췄다.

최정상급 미식 경험을 제공하는 대구·경북 랜드마크 백화점으로서의 입지를 또 한 번 굳히기 위해 오는 8월에는 강남점 '스위트파크'에 잇는 디저트 전문관도 오픈한다.

새 단장한 슈퍼마켓 농산 코너에서는 신세계가 산지부터 유통까지 엄격하게 관리하는 '셀렉트팜(지정산지)'의 최상급 과일뿐 아니라 대구·경북 지역 400여 농가에서 수확한 채소를 24시간 내 판매하는 '문양로컬푸드'가 입점해 초신선 제철 먹거리를 만날 수 있다.

정육 코너에서는 유통사 유일의 한우 PL(자체개발) 브랜드인 '신세계 암소 한우' 부위를 다양하게 늘리고 삼각살, 보섭살 등 특수 부위를 활용한 시즈닝 스테이크 상품도 만나볼 수 있다. 수요가 많은 샤브샤브와 스테이크용 고기는 집에서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도록 신선도를 오래 유지하는 소포장 전용 패키지를 선보인다.

그동안 내륙 도심에서 만나보기 어려웠던 식재료도 신선하게 만나볼 수 있게 된다.

희소한 어패류와 고급 해산물을 제철에 맞춰 즐길 수 있도록 국내 주요 포구에서 직송 받아 판매, 식탁에 다채로움을 더해줄 샬롯, 파스닙, 릭 등 수입 채소 전문 코너도 별도로 운영한다.

신세계의 초신선 대표 상품인 '이달의 참기름'도 서울 외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만나볼 수 있다. 한 달에 단 하루, 새벽에 착유해 당일 100병 한정으로 입고되는 참기름이다.

집밥의 수고를 덜어주는 식재료 손질 서비스도 시작한다.

고기와 생선, 갑각류 등 구입한 식재료를 고객이 원하는 대로 절단하거나 손질해 주는 서비스로 편리함과 프리미엄을 동시에 추구하는 '편리미엄' 수요를 겨냥했다.

차례상에 쓰이는 제수용 생선의 경우, 미리 주문하면 특수한 품목이라도 공수해 조리법에 맞게 손질해 제공하는 주문 제작 서비스도 선보인다.

청과 코너에 마련된 '퀵 앤 프레시(Quick and Fresh)' 존에서는 먹기 좋게 썰어놓은 '과일 도시락'을 다양하게 만날 수 있고 생과일을 즉석에서 착즙해 주스로 가져갈 수도 있다.

지역 백화점 최초로 진출한 프리미엄 과일 브랜드인 '청담아실'이 퀵 앤 프레시 운영을 맡기로 해 고당도·고품질의 과일을 맛볼 수 있다.

수박 등 손질하기 어려운 큰 과일을 즉석에서 잘라 소분해주는 서비스도 오는 5월부터 시작한다.

슈퍼마켓 새 단장을 기념한 여러 혜택도 풍성하게 마련했다.

과일과 한우, 수산물 등 인기 먹거리를 오는 28일까지 2주간 최대 80% 할인 판매한다. 성주 참외와 청도 미나리, 대구축협 브랜드인 대구팔공참한우 등 대구·경북 지역 특산물 행사도 오는 21일까지 선보인다.

김은 대구 신세계 점장은 "신세계만의 프리미엄 식품 경쟁력과 우수한 지역 농축산물을 겸비한 새로운 슈퍼마켓을 대구에 선보인다"며 "대구·경북 랜드마크 백화점의 위상에 걸맞게 고객 눈높이를 충족하는 미식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총선 참패 국힘, '관리형 비대위' 가닥…

새 지도부 구성 전당대회 준비

국민의힘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를 대체할 새로운 비대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번에 꾸려질 비대위는 관리형으로 전당대회를 개최, 새로운 지도부 구성 작업에 나선다.

국힘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4선 이상 당선인 간담회를 열고 1시간 동안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원회가 있는 상태면 비상대책위원회가 있을 필요가 없는데 최고위가 없고 전대를 하기 위해선 실무적인 절차를 진행하는데 당헌·당규상 비대위가 필요한 것으로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 체제 정비 방안을 포함한 여러 가지 현안 문제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며 "가급적 신속히 당 체제를 정비해서 책임감 있게 일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내일 당선자 총회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애초 당권주자들을 중심으로 조기 전대 개최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당헌·당규를 근거로 수습에 나서기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관리형 비대위의 위원장 구성 등은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다.

칠곡군,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

칠곡군은청렴문화확산및청렴의지표출을위해이색적인시책으로청렴명함을제작,배부한다.

청렴명함은 각종 계약 및 인허가 등의 업무를 하는 부서에서 업무를 처리, 민원인에게 청렴명함을 배부한다. 청렴한 자세로 업무에 임하겠다는 공직자 스스로의 청렴의지를 표출하기 위해 제작됐다.

명함에는 청렴문구와 칠곡군 공직자 비리신고센터로 자동 연결되는 QR코드를 삽입, 부패행위 신고에 편의를 더 했다.

칠곡군청의 모든 부서 출입문에 청렴안내판을 제작·설치, 외부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부패와 부조리를 사전 차단하고 청렴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했다.

상주시, 메타버스 민원안내 봉사 전국 첫 구현

메타버스 상주시청 구축 용역 완료보고회 개최

메타버스 상주시청은 메타버스와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이 결합된 혁신적인 시도다.

시민의 만족도와 활용도를 높이고, 기술 발전에 따른 지속가능한 서비스로 성장하는데 발돋움 한다.

강영석 상주시장이 한말이다.

때문에 강 시장은 "상주시 공직자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2일 오전 10시 30분, 시청 대회의실에서 메타버스 상주시청 구축 용역 완료보고회를 가졌다.

보고회는 강영석 시장과 국·소장 및 주요 부서장이 참석, 용역 수행사의 사업 수행 결과와 향후 관리 계획을 보고 받고, 질의응답하는 순으로진행됐다.

메타버스 상주시청은 웹 브라우저 기반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웹앱(Web App)으로서 별도의 '앱'을 설치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다.

경북도 메타버스 플랫폼'메타포트(Metaport)'과의 호환성을 고려, 개발됐다.

가상의 상주시청을 만들고 17개 주요 부서를 배치, 대화형태로 업무를 안내하는 메타버스 민원안내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구현했다.

대표축제인 '상주세계모자페스티벌'과 '상주곶감축제'행사장과 대표 관광지인 경천섬을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관광 체험을 할 수 있는 디지털트윈 기반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이경호 기자

칠곡군, 건강올림 PICK 인기몰이

건강 생활실천 치매 예방… 보건의료분야 종사자 격려

칠곡군은 지난 14일 가족과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세대통합, 건강합심, 건강올림PICK 행사를 가졌다.

칠곡보생태공원에서 군민 보건의식을 향상시키고 보건의료 분야 종사자를 격려하기 위해 제52회 보건의 날 기념식과 곁들였다.

김재욱 칠곡군수는 "군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다양한 건강증진정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결과 올해 경북도 보건의료사업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말했다.

그는 "행사가 군민 모두가 건강으로 하나되는 시간이 되고 칠곡군민 누구나 건강권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행사는 칠곡군 치매안심센터와 치매보듬마을이 함께하는 실종예방 뮤지컬과 상황극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막 올랐다.

1부 기념식에서 군민 건강증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표창수여와 기념사, 보건의 날 주제 슬로건 포퍼먼스 순으로 이뤄졌다.

2부 순서에는 세대 간의 소통과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세대가 함께 참여하는 명랑운동회를 열었다.

신체활동 건강체험 프로그램과 함께 보건소 건강증진사업 전반에 대한 체험 홍보부스를 운영, 850여명의 참가자에게 즐거움과 함께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다

연계행사로 진행한 건강을 챙김과 동시에 환경을 생각하는 에코 헬스 플로깅 챌린지와 한마음 치매극복 걷기대회에도 많은 주민들이 참여, 건강생활실천과 함께 치매 예방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었다.

조미경 기자

새 봄맞이… 예천군 행정이 확 바뀌었어요~

봄맞이 거리 단장
어린이 위생 교육
농업인 영농 교육

도담도담 건강놀이터 쌈지 화단 조성

예천군행정이분주하게움직인다.

새봄맞이 거리를 단장하고, 어린이 위생교육을 넘어 농업인들을 대상으로식품산업에열올린다.

예천군농업기술센터는 오는 26일까지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산물 가공창업교육 심화반'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

예천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도담도담 건강놀이터'를 진행한다.

이 뿐아니다.

예천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도 개포면에서 쌈지 화단을 조성하는 등 부주하게 움직이도 있다.

▣농산물가공창업교육 심화반 모집

농산물가공창업교육은 관내 가공창업 예비 농업인을 대상으로새달 9~7월 4일까지 매주 목요일 총8회 진행된다.

교육과정은 식품산업의 국내외 트렌드 변화, 농산물을 이용한 신제품 개발 아이디어 도출을 위한 이론교육 7회와 국제 식품산업대전(SEOUL FOOD 2024) 현장견학 1회로 구성됐다.

교육 참가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구비,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개발관(예천읍 지내길 10)으로 방문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정정호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교육으로 가공 창업에 관심 있는 농업인들이 지역 농산물 가공상품화에 필요한 제반적인 이론을 숙지, 국내외 식품산업대전 현장견학으로 소비트렌드를 반영한 신제품 개발 아이디어를 끌어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교육과정 안내 등 자세한 내용은 농업기술센터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농촌자원팀(650-8156)으로 문의하면 된다.

▣도담도담 건강놀이터

예천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새달 28일까지 관내 등록 어린이급식소 원아를 대상으로 어린이 위생교육 "도담도담 건강놀이터'를 진행한다.

교육은 △ 어린이 인형극 △ 올바른 손 씻기 위생교육 △ 뷰박스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구성, 식중독 예방 및 나트륨, 당분 섭 취 줄이기 등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에 도움을 준다.

한혜경 센터장은 "이번 교육이 아직 손 씻기에 익숙하지 않은 어린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예천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관내 어린이집을 비롯해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센터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급식 관리와 위생·안전, 영양 관리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쌈지화단 조성

예천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개포면 이영숙 회장과 회원 40여 명은 지난 12일 봄을 맞아 개포면 행정복지센터 일대 가로변 자투리땅에 쌈지 화단을 조성했다.

행사에는 농사일로 바쁜 중에도 많은 회원이 참석했다.

제라늄을 심어 삭막했던 거리를 꽃향기 가득할 쾌적한 거리로 만들었다.

이영숙 회장은 "바쁜 와중에도 함께 해주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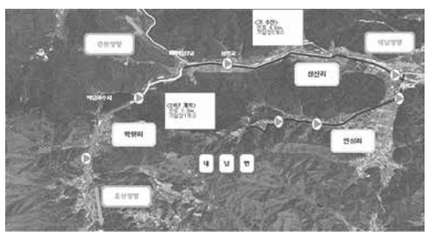
안명욱 기자

고은지구 농촌 공간 정비사업 탄력 붙어

경산시는 용성면 고은지구가 농림부에서 주관하는 '2024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도비 117억원을 확보했다.

농촌공간정비사업은 농림부와 경상북도가 농촌지역의 난개발과 경제·사회·환경적 불균형 문제에서 농촌이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농촌 생활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신경운 기자



경주시, 농어촌 급수구역 확대에 '박차'

경주시가 농어 촌지역인 내남면 상신리와 박달리에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공사를 시행한다.

이 사업은 상수도 공급혜택을 보지 못했던 내남면 상신리와 박달리 주민 600여명에게 깨끗한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 추진됐다.

총 사업비 35억원을 투입, 2026년 완공된다.

앞서 시는 2020년 12월 실시설계를 완료했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내남 상신리 광석교에서 박달 2교까지 상수관로 4.9km, 가압장 2개소 설치를 완료했다.

올해는 박달2교부터 박달저수지까지 상수관로 1.3km와 가압장 1개소를 오는 9월까지 완공, 내년 말까지 박달저수지부터 박달3리까지 상수관로 3.8km 설치를 마무리 한다.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인상

〈월 10만원〉

보훈명예수당·사망위로금 대상
HID 등 특수임무유공자 포함…

경주시가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인상과 사망위로금 지급대상 확대 추진한다.

지난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가수호를 위해 헌신한 이들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확대함으로써 애국심과 안보의식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개정된 조례안은 보훈명예수당을 월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 골자다.

보훈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에 HID 등 특수임무유공자도 포함시키는 내용도 담고 있다.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무 및 지원에 법률'은 보훈명예수당 대상에서 특수임무유공자를 제외한 탓에 이 같은 혜택을 받아 오지 못했다.

개정안이 의결되면,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 하반기부터 인상된 수당을 지급한다.

하반기부터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1790명이 인상된 수당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보훈명예수당 인상과 대상자 확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생활안정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 그분들이 영예롭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제1회 선덕여왕길 벚꽃맨발걷기 성료 경주시맨발걷기협회가 지난 14일 경주시맨발걷기협회 출범식 및 선덕여왕길 벚꽃맨발걷기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 앞서 시는 시민건강을 위해 명활산성~진평왕릉에 이르는 총 길이 1.8km의 선덕여왕길에 황토 마사토를 이용한 포장공사를 완료하고 사계절 내내 걷기 좋은 맨발길로 새롭게 정비했다. 선덕여왕길은 경주시의 둘레길 중 가장 핫한 곳으로 봄철 짧은 벚꽃 엔딩의 아쉬움을 대신 채워주는 겹벚꽃의 명소로도 알려져 있고, 최근 절정이라 상춘객들이 북적이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경주시맨발걷기협회 출범식을 축하, 경주가 자랑하는 선덕여왕길을 맨발 걷기로 많은 분들이 이용, 여가생활을 즐기는 동시에 건강까지 챙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봄맞이 반려식물 화분 분갈이 하세요"…

찾아가는 반려식물 돌봄 서비스
오늘부터 용강LH아파트 등 3곳

경주시가 반려식물을 키우는 시민을 위해 '찾아가는 반려식물 돌봄 서비스'에 나선다.

'찾아가는 반려식물 돌봄 서비스'는 치료센터 이용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으로 전문가가 찾아가 물관리, 병·해충관리 등 전반적인 반려식물 관리 컨설팅과 함께 분갈이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16일을 시작으로 경주용강 LH아파트 등 아파트 3곳에서 실시하고 하반기 9~10월 중 추가로 2회를 더 실시한다.

세대당 화분 2개의 분갈이 서비스 받을 수 있고, 분갈이할 새 화분은 직접 가지고 와야 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찾아가는 반려식물 돌봄 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의 정서적 안정과 삶의 활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2022년부터 반려식물 관리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반려식물 치료센터 10곳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경주, 위생관리 서비스 수준 한껏 높여

2024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숙박업 367, 목욕장업 82곳
세탁업 132곳 등 총 581곳

경주시가 15~9월 30일까지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한다.

평가 대상은 숙박업 367곳, 목욕장업 82곳, 세탁업 132곳 등 총 581곳이다.

방법은 공무원과 명예공중위생감시원으로 구성된 평가반이 업소를 직접 방문해 점검표에 따라 질문, 관찰 등으로 평가한다.

항목은 일반현황, 준수사항, 권장사항 등 3개 분야, 30~43개 항목으로 100점 만점 점수를 환산해 점수에 따라 등급을 결정한다.

최종점수에 따라 최우수업소(90점 이상, 녹색등급)와 우수업소(80~89점, 황색등급), 일반관리업소(80점 미만, 백색등급)로 구분된다.

평가항목표의 준수사항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업소와 최근 2년간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는 최우수등급에서 제외된다.

윤용찬 기자/사진 경주시제공

경주시, APEC 손님맞이 마을가꾸기 참 바쁘다

펜지, 비올라 등 계절 꽃
8000그루 봄맞이 새 단장

지난 12일 경주두산위브트레지움 경로당에서 환경정비 활동을 통한 지역사랑 활동에 앞장섰다.

경주시가 봄맞이 새단장으로 APEC 손님맞이 마을가꾸기가 한창이다.

문무대왕면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4일 주요 도로변, 공한지, 상습 쓰레기 불법투기지역, 마을 화단 등지에 펜지, 비올라, 라넌큘러스 등 계절 꽃 8000그루를 심었다.

사업은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를 위한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조성에 따라 새마을부녀회원 20명과 생활개선회원 20명 및 지역주민 10명이 참여해 잡초 제거와 계절 꽃 식재에 구슬땀을 흘렸다.

와읍교차로, 주민자치센터, 문무대왕면 입구 교차로 등 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습 쓰레기 불법투기지역에 꽃을 식재했다.

지역민들과 관광객들에게 경주가 APEC 정상회의의 최적의 장소라는 공감대를 형성에 기여했다.

임재윤 문무대왕면장은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를 위한 아름다운 문무대왕면 만들기를 위해 애써주신 새마을부녀회와 생활개선회 및 지역주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아름답고 쾌적한 문무대왕면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경주시 용강동 경로당 회원들도 거리 환경정비에 구슬땀을 흘렸다.

두산위브트레지움 경로당 회원들은 지난 12일 '우리지역은 우리가 가꾼다'는 구호를 걸고내걸고 환경정비를 통한 지역사랑 활동에 앞장섰다.

경로당 회원들은 거주 아파트를 중심으로 녹지공간 및 도로 일대의 생활쓰레기와 낙엽 등을 수거하고 불법으로 부착된 광고물을 정비해 지역주민을 위한 환경정비에 앞장섰다.

권오길 회장은 "이번 환경정비 활동은 지난해부터 정기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봉사활동으로, 지역을 우리 스스로 정화해 노인들도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어 회원들이 큰 자긍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손기복 용강동장은 "지역의 어른들께서 직접 솔선수범하는 모습이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될 것이다"며 "외부에서 하는 활동인 만큼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이어가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4 경북도 · 경주시 사회조사 실시

경주시가 오는 18~새달 3일까지 '2024 경북도 및 경주시 사회조사'를 한다.

시민 삶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조사로 결과는 지역개발과 복지시책 추진 등 시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조사항목은 가구와 가족, 교육, 환경, 소득 등 12개 부문과 경상북도 공통항목 42개 및 경주시 특성항목 8개 등으로 구성돼 있다. 지역 내 1428가구가 표본 가구로 선정, 조사원이 직접 방문한다. 앞서 시는 정확한 조사를 위해 조사원 대상 조사표 작성 요령, 코로나 방역 수칙 및 안전교육 등을 완료한 상태다.

영덕 청송
영양 청도
울릉 울진

청도읍성에서 버스킹 공연

청도군이 마련한 찾아가는 문화예술활동 지난 13일 청도읍성 석빙고 광장에서 열렸다.

지역주민과 청도를 찾은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운 청도읍성의 경관과 함께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했다.

성악과 기타 버스킹이 어우러진 이날 공연에서는 환호와 박수갈채가 쉴 새 없이 이어졌다. 소프라노 최은혜, 베이스 이상규, 테너 김도운의 성악공연은 관객의 마음에 전하는 진한물림으로 버스킹 현장을 메운 관객들의 함성이 어어졌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많은 관광객들이 문화예술 중심지 청도를 찾아 지역문화를 함께 공유하고 소통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영덕군, '찾아가는 복지상담실' 운영

영덕군은 '2024 상반기 찾아가는 복지상담실'을 오는 18일 강구면 금호2리 마을회관 마당에서 운영한다.

행사는 영덕군 자원봉사센터 행복마을만들기 사업과 연계해 거동이 어렵고 정보에 취약한 주민들을 위해 직접 마을을 찾아 상담을 진행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운영시간은 행사 당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로, 생계 곤란, 의료복지, 주거 안정, 노인복지 등 복지 관련 상담과 각종 복지서비스 신청 및 연계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제공된다.

울진군, 마음 안심 버스 운영

울진군은 지난 11,12일 울진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경북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울진군청 직원을 대상으로 '마음 안심 버스'를 운영했다.

마음 안심 버스는 230여 명의 직원들에게 스트레스 측정 기기를 활용한 건강 상태 측정, 정신 건강검진, 개별상담을 제공했다.

참여자들의 결과에 따라 고위험군을 선별해 심층 상담을 통한 사례관리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마음 안심 버스 방문을 원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울진군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영양군, 제20회 일월산 전국 오픈 탁구대회

영양군은 지난 13일 영양군민회관에서 제20회 일월산 전국 오픈 탁구 대회를 개최했다.

대회는 영양군 탁구협회가 주최 및 주관하여 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 진행되었으며, 전국의 탁구 동호인 72팀 480여 명이 참가하여 개인전 및 단체전으로 경기를 펼쳤다. 올해로 20회를 맞은 일월산 전국 오픈 탁구 대회는 영양군에서 개최하는 대표 생활 체육대회 중 하나다. 많은 전국의 생활체육 탁구 동호인들이 참가, 탁구 저변 확대의 성과를 올리고 있다. 대회 기간 중 방문객들의 지역 시설 이용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올해로 20회를 맞기까지 많은 노력을 해주신 대회 관계자 및 동호인 분들께 감사드리고, 오늘 대회가 전국에서 오신 모든 탁구 동호인 분들이 화합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제주에서 울릉·독도 해녀… 명맥 이어온 삶 여정

2024 독도·해녀박물관 공동기획전
남한권 울릉군수, "제주도 해녀들의 울릉·독도 출어문화사 재조명 전시
많은 관람객들이 제주·울릉 연결…
문화적 키워드 해녀의 역사와 문화
명확히 이해하는 자리가 되길 바래"

독도·해녀박물관은 15일부터 2025년 2월 2일까지 독도박물관 별관 특별전시실에서 "독도 그리고 해녀"라는 제목의 공동기획전을 개최한다.

전시는 독도박물관과 해녀박물관의 문화교류 및 공동학술연구 사업으로 추진된 전시다.

지난해 해녀박물관에서 1차 공동기획전이 열렸다. "독도 그리고 해녀"전시는 울릉·독도로 출어한 해녀들의 역사와 활동내역, 조업방식의 변화, 어구의 변화, 울릉도에 정착한 제주해녀, 최종덕의 해녀고용 등 울릉도에 적응해가는 제주해녀의 문화사를 다각도로 보여준다.

현재 전해지는 기록 중 제주해녀의 독도출어를 입증할 수 있는 가장 이른 시기의 기록은 1935년 일본의 '수지결산서'이다.

초기 제주해녀들은 일본인에 고용돼 울릉도 및 독도로 출어, 경제활동이 출어의 주된 목적이었다. 이후 그녀들은 해방 이후 독도의용수비대, 한국산악회, 독도경비대 등 독도수호 및 학술조사단체에 고용되는 과정에서 독도영유권 강화의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했다. 독도 최초의 주민인 故최종덕이 장기적으로 제주해녀를 고용, 독도 정주어업을 했다.

제주해녀는 독도의 실효적지배 강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제주해녀의 울릉도 및 독도 출어 활동 연보가 이번 전시에 다양한 사료와 함께 소개되고 있다.

제주해녀들이 제주도와는 전혀 다른 해양환경을 가지고 있던 울릉·독도에 적응하기 위해 조업방식과 어구들을 변화시켜간 사항도 전시된다.

대표적으로 제주도에서 박을 이용, 제작됐던 테왁이 울릉도의 거친 파도와 물살에 견디기 위해 양철통, 말통, 부표 등으로 소재가 변용된 사례의 실물모형과 과거 이를 이용한 해녀들의 조업 영상이 전시된다.

故최종덕은 자신이 고용한 제주해녀에게 나잠어업과 잠수기어업의 중간 형태인 '하다카 조업'을 교육, 독도에서 보다 깊은 수심에서 장시간 조업이 가능하도록 변용한 조업기술의 사례도 소개된다.

과거 故최종덕이 독도에서 해녀들과 생활하기 위해 양철 슬레이트로 지은 어민보호소 건물의 실물모형과 당시 사진이 함께 전시돼 당시 독도에서의 열악했던 생활환경을 보여준다.

전시에서는 현재 울릉도에 정착한 제주해녀 8명의 구술생애사 영상을 키오스크를 통해 선택 관람 할 수 있다.

제주도에서 울릉도와 독도로 출어, 결국 울릉도에 정착한 해녀로서의 명맥을 이어온 그녀들의 삶의 여정이 이번 전시의 이야기를 풍성하게 만든다.

남한권 울릉군수는"이번 전시는 제주해녀들의 울릉도 및 독도 출어 문화사를 재조명하는 전시로, 많은 관람객들이 제주도와 울릉도의 연결하는 문화적 키워드인 해녀의 역사와 문화를 명확히 이해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남 군수는 "나아가 해녀들의 활동이 독도의 실효적지배 강화에 기여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공동기획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정윤환 기자

울진관광 1,000만 시대 향한 힘찬 발걸음

울진군–한국여행업협회 양해각서
손병복, 직접 프레젠테이션 참석…

손병복 울진군수가 울진 관광 1000만시대를 연다고 호언장담했다. 울진군은 지난 12일 한국여행업협회와 울진관광 1000만시대 달성을 위한 상호 협력과 공동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이번 협약으로 체계·효율적인 관광객 유치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울진군 관광자원이 꾸준히 경쟁력을 높여 1000만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게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손병복 울진군수와 한국여행업협회 오창희 회장, 여행업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 손병복 울진군수가 직접 자연치유 웰니스 관광을 강조한 울진군 관광 설명회를 가졌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공동 시장조사 활동, 연계 관광상품 개발·운영 및 판매증진 등 공동 발전에 대해 상호 협력한다. 군은 협약과 함께 한국여행업협회 특별회원으로 가입했다.

국내 여행사와 관광 관계기관 등과 활발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울진 맞춤형 관광 홍보활동을 한다.

이정수 기자

울진군, 과수화상병 척결… 청정지역 사수

사과 재배 농업인 대상
과수화상병 예방 연시회

울진군은 사과 재배 농업인을 대상으로 과수화상병의 예방을 위한 현장 연시회를 가졌다.

연시회는 지난 12일 매화면 길곡리 최익화 농가의 사과 과수원에서 열렸다.

과수화상병은 식물방역법상 법정 금지병으로, 사과·배·모과 등 장미과 39속 180여 종 식물을 기주로 삼고 잎·꽃·가지 등의 조직이 마치 화상을 입은 것처럼 검게 마르는 피해를 주는 세균병이다.

일단 감염되면 뚜렷한 치료법이 없다.

전염력이 매우 강해 인근 과수원의 나무까지 전부 매몰 처리해야 할 만큼 사과·배 산업에 가장 치명적인 병원균으로 알려져 있다.

효과적인 방제는 주요 감염경로인 방화곤충 등의 관리와 함께 감염부위인 궤양 증상 부위를 절단 매몰하고, 전정시 작업도구, 농기계 및 작업자 등을 철저하게 소독하는 것이 필요하다.

과원의 적정한 습도 관리 및 자체적 예찰 강화 등의 예방적 관리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개화 전 1회, 개화기 2회, 낙화 후 1회 등 총 4차에 걸쳐 시기별로 동제, 미생물제, 옥솔린산 등의 적정 약제를 적용한 선제적 예방 방제가 가장 중요한 방제법이다.

교육에서 약제 방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살포 시기, 적정 희석배수 및 약제 혼용 가부 등의 농약 안전 사용법을 집중적으로 교육함과 동시에 관련 자료를 나눠줬다.

손병복 울진군수는"울진군은 지금까지도 과수화상병 청정지역이지만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 과수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예찰 및 예방적 방제로 청정지역 사수를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과수화상병 관련 자세한 문의는 농업기술센터 경제작물팀(054-789-5250~2)로 하면 된다.

이정수 기자

무릉도원 따로없다 청송이 무릉도원

청송군은 오는 20~5월 19일까지 군립청송야송미술관에서 야송 추모 5주기 특별전시회 '무릉도원을 담다' 展을 개최한다.

특별전은 청송 지역과 나아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한국화가 야송 고(故) 이원좌 화백을 추모하고 그의 문화예술혼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한 전시회이다.

야송이원좌화백은청송군파천면에서 출생했다.

홍익대학교를 졸업한 후 다양한 활동을 통해 다수의 작품을 남겼다. 가장 대표적인 작품으로 초대형 실경산수화 '청량대운도'(46×6.7m)가 있다.2005년 군립청송야송미술관 개관과 더불어 초대관장을 역임, 고향 청송을 비롯한 우리나라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무릉도원을 담다'展은 옛 부터 많은 사람들의 꿈꾸던 이상향인 무릉도원이 오늘날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도 존재함을 야송 화백의 작품에서 느껴볼 수 있도록 기획한 전시다.

중국 명소를 배경으로 한 작품 계림장경도, 흔관무릉원, 황산운곡도 등 20여 점이 전시, 중국의 무릉도원(계림, 황산)을 관람객들에게 선보인다.

전시회에서는 야송 화백이 유주, 계림, 천자산, 황산 등 중국의 여러 명소들을 여행하면서 보고 느낀 중국 산수의 수려함과 그 속에서 야송 화백이 꿈꾸던 무릉도원을 야송 화백만의 독창적인 한국화 화법으로 표현한 작품들을 볼 수 있다.

윤병문 기자

영천 영주 봉화 의성 고령 성주

최기문 영천시장은 16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동대문구청에서 열리는 전국 한방산업 상생발전협의회 창립총회에 참석한다.

의성군,지난 12일 치매극복 자두꽃길 걷기대회 실시

의성군 치매안심센터는 지난 12일 한마음 치매극복 자두꽃길 걷기대회를 봉양면 삼산1리 치매보듬마을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치매에 대한 인식개선과 치매환자·가족 및 지역사회와의 치매극복을 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다.

자두꽃길 걷기가 열리는 봉양면 삼산1리 권역은 4월이 되면 마을 주변 자두밭에 새하얀 자두꽃들이 만개해 제일 먼저 봄이 왔음을 알려주는 시기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간단한 치매예방체조 후 삼산1리 기억이음 미술관에서 출발해 강변 자두꽃길을 따라 약 1.5km 이내 코스를 걸으며, 걷기구역 내 치매인식개선 치매퀴즈 존이벤트를 통해 치매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

이외에도 치매포토존 및 체험부스를 운영하며 2시간가량 진행됐다.

행사에 참여한 주민 A씨는 "예쁘게 핀 꽃들을 보고 걸으며 치매에 관한 다양한 정보도 얻을 수 있고, 막연한 두려움과 우울감을 이겨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치매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환자와 가족 구성원, 나아가 지역사회 전체가 한마음으로 극복해야 한다"라며 "걷기대회를 통해 치매에 대한 그릇된 편견을 해소하고 힐링의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박재성 기자

봉화군 치매안심센터, '치매파트너 양성교육'성료

봉화군 치매안심센터는 지난달 5일부터 지난 12까지 기존 및 신규 치매보듬마을 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치매파트너 양성 교육을 실시했다. 치매파트너란 치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일상에서 치매환자와 가족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동반자로, 초등학생 이상 누구나 치매파트너 교육 이수 시 치매파트너가 될 수 있다.

이번 교육에서 치매의 원인과 증상, 치매조기검진의 중요성, 치매환자를 대하는 방법 등 이해하기 쉬운 내용을 바탕으로 교육이 진행돼 보듬마을 내 치매환자 돌봄 공백 및 관심도 부재로 인한 위험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치매환자와 가족이 어우러져 지낼 수 있는 치매 친화적 사회 유지에 도움을 줬다. 전상기 기자

고령 개진 하우스 감자 출하… 낙동강 천혜의 맛

개진면, 5월 중순까지 출하 이어져
무공해 감자 특대 박스당 7만원

고령군 개진면은 지역 대표 농특산물인 무공해 '개진 하우스 감자'를 본격 출하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개진 하우스 감자는 이날 이동완 씨 농가를 시작으로 5월 중순까지 출하가 이어질 예정이다.

첫 출하된 감자는 대구 대양청과로 전량 납품됐다., 박스(20kg)당 가격은 특대 7만원, 특 6만 3000원으로 작년 대비 1만원 이상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110여 농가가 146ha에서 재배(노지포함)하고 있는 개진 감자는 낙동강변 사양토에서 재배되어 칼로리가 낮고 맛이 좋아 다이어트 식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농가들이 겨울철에도 땀흘려 재배한 개진 하우스 감자는 노지 감자에 비해 물량이 적어 직판장 운영은 하지 않고 농가들이 직접 공판장에 납품을 한다.

박장하 개진면장은 "올해는 평년보다 일조량이 적어 농가당 감자 수확량이 예년보다 조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경쟁력 있는 개진 감자 생산과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재배농가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배영백 기자

성주향교, 잠자고 있는 문화유산에 생명의 기운을…

'선비문화체험' 행사 개최
선비의 역사교육장으로 발전

성주향교는 지난 13일, 14일 양일간 '선비의 고장 성주, 선비문화체험' 행사를 개최했다.

성주군의 국가 보물로 지정돼 문화재적 가치가 우수하며 대도시와 인접해여 활용가치가 매우 높은 문화유적이다.

향교문화유산활용사업은 8년 연속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됐다. 성주향교는 향교 문화유산과 배향인물이 품고 있는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활용해 향교를 생기 넘치는 문화공간이자 인성을 함양하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프로그램을 지역민과 관광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전국에서 선비문화체험을 위해 참가한 참가자들에게 좋은 추억을 제공했다.

첫날 행사취지 설명 및 성주향교소개를 시작으로 명륜당에서 대성전까지 고유례체험, 선비 문화유적 영상콘서트, 참외 송편만들기등 전부리체험 및 사군자 치기, 포토존 가족사진촬영, 선비들의 풍류음악회기 이어졌다.

둘쨋날 심산 김창숙생가, 한 개마을 투어등 참가자들로부터 좋은 추억을 제공했다. 향후 4월부터 10월까지 성주향교를 활용한 체류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성주참외요리체험, 만화루 음악교실, 한 개마을 스토리텔링 탐방으로 구성된 '성주향교 가족사랑 캠프'와 차와 함께하는 유치원 인성교실, 지구사랑 친환경화분 만들기 등으로 이루어진 '성주향교 인성사랑유치원'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역사와 전통문화의 향기를 품은 향교문화유산을활용한 창의적이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어린이, 가족에게 제공해 향교의 의미를 되새기고 성주를 살아 있는 선비의 역사교육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감사함을 전했다. 도재훈 기자

오천 정 씨 휘억 효자공파 영천시립박물관에 유물 기증

세효록 목판 20점 무상 기증

영천시는 15일 오천 정 씨 휘억 효자공파에서 영천시립박물관에 귀중한 유물을 기증했다고 밝혔다. 문중 기증은 지난 2월 평산신씨 문중 혼복원의 기증에 이어 2번째 성과이다.

기증 유물은 광해 16년(1614년) 오천 정 씨 선조 정억(鄭嶷)이 효자 칭호를 수여받은 내용이 실린 '세효록'의 목판 20점이다.

'세효록'의 서문, 발문은 정진헌이 작성했으며, 선조 정억 뿐만 아니라 정잠 형제와 그 후손 정효증 등 정 씨 후손의 효행이 기록됐다.

그동안 유물은 정억의 정려각(영천시 화남면 사천리 소재)에 보관·관리되다가 목판 유물의 까다로운 보존 환경관리의 어려움으로 영천시에 무상 기증했다.

이에 시는 15일 문중 대표자들을 초청해 기증증서와 감사패를 전달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충효 전통의 고장인 우리 영천시에 귀한 유물을 조건 없이 내어주셔서 감사드린다."라며 "영일 정 씨 선조와 후손들의 효행 기록이 담긴 책판은 정히 보관하고 관리해 내년 개관하는 영천시립박물관에 안전히 이관시키겠다. 또한, 선조들이 지켜낸 '효'를 우리 시민들이 기억하고 행할 수 있게 널리 알리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영천시립박물관에 기증·기탁되는 유물은 박물관 개관 전까지 임시 수장고(임고서원 수장고, 경북문화재단 문화재연구원 수장고)에 안전히 보관·관리하고 수장고 준공 후 이관될 예정이다.

유물기증운동은 항시 진행 중이며 유물 기증 및 기탁을 원하는 시민은 문화예술과 박물관건립추진팀 이메일(leezi@korea.kr) 혹은 전화(☎054-330-6752)로 연락하면 된다. 최은하 기자

영천시 저출생 극복 성금 기부 잇따라

영천시에 저출생 극복을 위한 성금 기탁이 이어지고 있다.

15일 시에 따르면 정광원 환경실천연합회 상임부회장이 300만 원, 손종환 법무사가 100만 원을 각각 기탁했다.

정광원 상임부회장은 평소 환경운동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

(주)강산, 승원친환경기술을 창사해 지역사회 발전을 이끌고 있으며, '국민비전' 공동대표 겸 '경북비전' 회장, 바르게살기운동 영천시협의회 명예회장을 맡아 꾸준한 사회 공헌 활동 및 기부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정광원 회장은 "기업인으로서 저출생 극복을 위한 성금 기부에 힘을 보태는 것은 당연하다."라며 "저출생 대응을 위해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문화 만들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영천시 창구동에서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손정환 법무사는 부동산 등기, 법인 등기, 상속 및 소장 작성 등 다양한 법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손정환 법무사는 "저출생은 국가적 위기이고 위기 극복을 위해 온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하는 만큼, 동참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저출생 극복에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저출생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성금 모금 운동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책에 많은 관심과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최은하 기자

영주시장, 서울시민에게 '영주의 멋과 맛' 알려

15일, 청계광장서 '영주의 맛과 멋'
'영주 한국선비문화축제', '영주사과' 홍보

박남서 영주시장은 15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영주 한국선비문화축제 홍보 및 영주사과 시식행사'에 참가해 서울시민들에게 '영주의 멋과 맛'을 알렸다.

이번 행사는 5월 4일부터 6일까지 순흥면 선비촌 및 문정둔치 일원에서 열리는 '영주 한국선비문화축제'와 전국 최고품질을 자랑하는 '영주사과'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서울시민 2천여 명이 방문해 영주사과의 '새콤달콤 아삭한 맛'을 즐겼으며 '가정의 달 황금연휴'에 진행되는 영주 한국선비문화축제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

특히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번 축제를 공유하면 깨끗하게 세척되어 껍질째 먹을 수 있는 영주사과를 나눠주는 이벤트도 진행돼 방문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벤트에 참가한 윤미자 씨(59세, 월계동)는 "요즘 사과값이 금값인데 영주사과를 받게 돼 복권에 당첨된 기분이다"며 "5월의 첫 주말에는 한국선비문화축제가 열리는 영주에 가족과 함께 꼭 방문해 볼 생각이다"고 말했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오늘 행사가 서울시민들에게 '영주의 멋과 맛'을 알리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로 15회를 맞이하는 시 대표 축제 '영주 한국문화선비축제'에 오셔서 '영주의 멋과 맛'의 정수를 느껴보시길 추천했다. 전상기 기자

봉화군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 대상 한국어교육 '호응'

한국 사회에 안정적 정착 계기 기대

봉화군가족센터가 관내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한국어교육이 호응을 얻고 있다.

센터는 지난 3월 말부터 관내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 10명을 대상으로 '실생활에 유용한 한국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어 교육은 결혼이민자에게 실생활에 유용한 실용 한국어를 7개 과정으로 구성해 일상에서 자주 쓰이는 생활어휘 및 문법 등을 익히고, 한국사회 적응력을 높여 안정적으로 한국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이다.

3월부터 8월까지는 7개 과정 중 2개 과정이 진행되며, 각 교육과정은 주 2회 집합교육으로 구성돼 있다.

첫 번째 과정은 한국어능력시험(TOPIK)의 내용을 기준으로 한 읽기, 듣기, 쓰기이고 두 번째 과정인 '한국사회 이해(심화과정)'는 한국의 사회제도 및 한국문화와 역사 이해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한 결혼이민자 여성은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는 한국어를 배울 수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된다."면서 "앞으로 한국어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송갑순 봉화군가족센터장은 "결혼이민자들이 실생활에 유용한 한국어교육을 통해 한국어 능력 향상은 물론 한국의 문화·사회·제도를 이해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전상기 기자

가장 자연적 축제가 바로 가장 건강한 영양 산나물 축제

5월 여왕의 계절 영양서 산나물 축제가 막오른다 여왕님 손잡고 영양가자 그곳에서 자연의 섭리에 빠져보자…임금님 수라상 어수리 나물 꼭 먹어보자

봄이다.

봄처녀 살랑이는 봄바람 맞으며 영양으로 가보자.

그곳에 가면 울창한 숲을 통과한 햇살이 발밑에 부서진다.

바람에 실려 온 솔향기에 머리가 맑아진다.

영양 일월산 자락의 '대티골 아름다운 숲길'이다.

곳곳에 쉼터와 벤치가 있어 쉬어 가기도 좋다.

어디 이 뿐인가

이곳에 자라는 산나물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없다.

일월산(1219m)은 산세가 공중에 우뚝 솟아 웅장하고 거대하다.

산정은 평평하고 급하지 않다.

동쪽으로 동해가 바라보이고 해와 달이 솟는 것을 먼저 바라본다 해서 일월산이라고 부른다. 꼭대기에는 일자·월자봉의 두 봉우리가 솟아 있다.

천축사라는 사찰터와 산령각, 황씨부인당, 용화사, 천화사 등이 있다.

일월산은 음기가 강한 여산으로 알려져 그믐날만 되면 전국 각지의 무속인들이 이 산을 찾아 영험함과 신통함이 더한 내림굿을 한다.

무엇보다 심산유곡에 자생하는 일월산 산나물(고사리, 참나물, 금죽, 나물취 등)은 향과 맛이 뛰어나다.

5월 여왕의 계절 영양에서 산나물 축제가 막오른다.

영양군은 신선한 산나물을 직접 채취를 해보고 산나물먹거리 및 다양한 체험·볼·즐길거리 등 다채로운 행사 준비를 마쳤다.

이제 관광객만 맞이하면 된다.

영양 산나물축제에 가면 △산나물 판매장터 △야간트레킹 탄소중립 계몽운동 △별이 빛나는 밤에 음악회 △1219 산나물비빔밥 만들기 △제2회 영양산물전국가요제 △양수발전유치 군민화합 축하무대 △산나물테마거리 △산나물채취체험 △음식디미방 체험 △영양전통시장 먹거리 장터 △산촌먹거리촌 운영 △관내지역공연 △산나물경매 및 무대프로그램이 풍성하게 짜여졌다.

여왕의 계절 5월 여왕님 손잡고 영양 산나물 축제에 꼭 가보자.

그곳에서 자연의 섭리에 푹 빠져보자.

가장 자연적인 영양군에서 열리는 축제가 바로 가장 건강한 산나물 축제다.

명실상부 경북지역 대표 축제다.

'영양 산나물축제는 5월9일 막오른다.

축제는 12일까지 4일간 흥에겨운 축제로 손님을 맞이한다.

영양을 대표하는 산나물들에 대해 알아보자.

▣임금님 수라상 단골 손님, 어수리 나물

맑은 정기를 머금은 영양군 일월산은 예로부터 춘양목이 많이 나는 곳으로 유명했다.

1960~80년 대에 이루어진 대규모 벌목 탓에 큰 소나무가 거의 사라졌다.

그 자리를 차지한 나물, 바로 어수리다.

해발 700~800m 이상 높은 산에서 자생하는 어수리는 동의보감에서 '왕삼'이라 해 피를 맑게 하고 염증에 좋은 식물로 약재로도 사용했다.

임금님 수라상에 오르는 등 귀한 대접을 받았다.

청정 지역에서 혹독한 겨울철 눈 아래에서 싹을 틔우는 어수리는 특유의 생명력을 머금고 봄철 가장 먼저 우리 곁을 찾아온다.

뛰어난 향과 부드러운 식감으로 최근 웰빙 식품으로 각광받는다.

일월산 자락의 어수리는 그 맛과 향이 진해 전국에서도 최고의 품질로 평가받는다.

본격 출하가 시작되는 4월이 되면 1~2주씩 주문이 밀리기도 하니 미리 봄을 만나고 싶은 분들은 미리 주문하시길 바란다.

▣데쳐먹어 두릅 두릅 두릅~

흔히 접두사 '개-'는 '빛 좋은 개살구'처럼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지만 '개두릅'은 다르다.

엄나무 새순인 개두릅은 쌉싸름한 맛에 향이 강하고 비타민C, 비타민B1, 칼슘 등이 풍부하다.

약효가 좋아 두릅 중에서도 최고로 대우받는다.

하우스 재배가 어려워 대부분 자연산으로 다른 두릅에 비해 비싼 가격을 받는다.

두릅나무에서 자라는 참두릅은 탄수화물, 단백질, 철, 칼륨, 인, 미네랄 등이 함유돼 있다.

비타민 또한 풍부하다.

개두릅에 비해 향이 약해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두릅 향에 포함된 정유 성분은 칼슘과 함께 신경을 안정시키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

클로로겐산이 함유, 각종 성인병 예방에 도움을 주고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되는 두릅을 살짝 데쳐 초장에 찍어 먹으면 입 안에 봄을 한가득 머금은 사치를 느낄 수 있다.

▣곰취는 사랑이다

하트 모양을 꼭 닮은 곰취는 봄철 쌈채소에서 빠져서는 안 될 산나물이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삼겹살의 느끼함을 잡아주는 데 곰취의 쌉싸름한 맛만한 것이 없다.

곰취는 단백질, 칼슘, 비타민A, C 등이 풍부하며 중국에서는 타박상, 요통, 각혈 등에 약재로써 사용했다.

곰취를 오래도록 즐기기 위해 장아찌로 담그는 것 또한 좋은 방법이다.

잘 손질한 곰취를 간장, 식초, 매실청 등에 담그면 쌉싸름한 곰취에 달콤함을 더해 오래도록 밥반찬으로, 삼겹살의 단짝으로 즐길 수 있다.

▣잎사귀에서 퍼지는 알싸한 마늘향, 산마늘

부추속에 속하는 다년생 식물인 산마늘은 고산지대에서 자라나며 산마늘이란 이름답게 은은한 부추향과 마늘향이 어우러져 한 번에 두 가지 향을 느낄 수 있다.

생으로 먹을 땐 아삭아삭한 씹는 맛을 느낄 수 있고 주로 장아찌로 고기와 함께 먹는다.

산마늘에 포함된 알리신 성분은 비타민 B1 활성화 및 향균작용을 한다.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기 때문에 맛뿐만 아니라 영양소 면에서도 육류와 찰떡궁합이다.

식용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4~5년은 기다려야 하는 귀한 산마늘이다.

수확 후 하루 정도만 지나도 금방 시들기 때문에 산지를 제외하고는 생채로 만나기 힘들지만 산마늘이 자라는 영양에서는 평소 먹기 힘든 산마늘 생채 쌈을 먹어볼 수 있다.

▣가장 건강한 축제, 영양 산나물축제

영양 산나물축제는 건강 축제다.

어수리, 두릅, 곰취, 산마늘, 취나물 등 향도 좋고 몸에도 좋은 산나물들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고 청정 일월산에서 직접 채취 체험(예약기간 4월 15일 ~ 26일, 054-680-6622)을 할 수도 있다.

영양 산나물축제 기간 산나물 품질관리위원들이 행사장 전반에서 판매되는 산나물의 품질을 관리하니 믿을 수 있는 품질의 산나물을 가격표시제로 투명하게 구입할 수 있다.

산나물 장터 외에도 고기굼터, 특별 공연, 각종 체험행사 등 먹을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가득한 '제19회 영양 산나물축제와' 함께 '건강한 봄'을 맞아보자.

권윤동 기자